

# “급격한 情報化가 社會生活 바꾼다”

정철수

〈慶北大 社會學科교수〉

정보화란 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전체의 효과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화사회란 정보의 가치가 물질자원이나 에너지 못지 않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화사회에서는 대다수 노동인구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분야에 종사하며 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화사회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날 급격히 밀어닥치고 있는 정보혁명의 물결은 우리들 생활의 각부면에 침투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고, 가치관, 행동유형 및 인간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의 물결이 우리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것이 어떠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 개인생활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인간의 노동량은 줄어들고 보다 많은 여가생활이 생기게 될 것이다. 자유

시간의 증대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며, 취미생활이나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는 잘 발달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의 생활이 감시당하고 신상자료가 공개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 모든 자료는 관리가 용이하게 잘 정리되고 찾아보기도 쉬워져 일하기가 편리해지는 한편, 자기도 모르게 개인적인 정보가 잘못 입력·관리되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 가정생활

정보화사회는 가정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노동화란 말 그대로 전화는 물론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기들이 집에 설치되어 밥을 짓는 일에서부터 세탁·청소 등의 가사업무를 주부들이 편리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용되고 있는 가사자동화 시스템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능을 가지

고 있다. 화재·도난·가스누출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음성으로 경보하는 보안기능, 외부에서 전화로 가전제품을 작동시킬 수 있는 원격제어기능, 그리고 비디오 모니터로 방문객을 볼 수 있는 확인기능이 그것이다.

또 앞으로 가정에서 비디오텍스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시장정보·물가시세·일기예보·등산오락·낚시 등 생활정보와 음악회·전시회 등의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영화관람권·비행기표·기차표 등도 쉽게 집안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컴퓨터 단말기 버튼만 누르면 은행예금·공과금 납부·물건값의 지불 등 모든 금융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백화점이나 시장에 나갈 필요없이 집에서 컴퓨터 단말기의 화면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여 값을 치르고 배달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거리진단시스템을 이용하면 병원에 갈 필요없이 안방에서 담당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버튼하나로 집안일이 척척 이루어지고 바깥일도 볼 수 있게 되면 여성들이 여가시간과 가족들끼리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직장생활

새로운 미디어의 개발로 통신망이 전국 어디에나 거미줄처럼 깔리고 각종 사무기기가 가정에 설치되면 구태여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가정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른바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복잡한 통근버스에서 시달리거나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재택근무는 여성이나 노인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에서의 그들의 활동영역을 넓혀 줄 것이다. 그리하여 정보화사회는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관념을 바꾸게 할 것이 틀림없으며 「여성도 가정에서 남성은 직장에서」라는 역할 2분법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 제

정보화가 고도로 진전됨에 따라 「알빈 토플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2물결 시대의 획일적인 대량생산의 시대에서 고개의 욕구와 취향에 따르는 주문생산의 시대로 옮겨가게 되고,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 발달하여 각종 산업이 소품종 다생산에서 다품종 소생산으로 경향으로 이행해 갈 것이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생산의 도시집중화가 배제되고 농촌지역으로의 분산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자기욕구에 맞는 제품을 뉴미디어를 이용하여 공급자에게 요구하게 되고 뉴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소비자의 취향은 공급자로 하여금 다양한 제품을 만들게 할 것이다.

이처럼 소비생활에서 다양성을 지향하는 소비자, 그러한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생산자, 새로운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다양한 욕구를 생산업자에게 모아줄 뉴미디어가 삼위일체가 되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는 풍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유통분야는 여러 단계의 유통경로, 즉 생산자에서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던 과정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우체국이 전산화되어 종합봉사창구가 되면 일류제품 생산자와 시골에 있는 소비자를 우체국이 직접 연결하는 주문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정 치

정보화사회의 소재는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집마다 보급된 단말기는 국민의 의견수렴으로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이 글은 대한전자공학회가 주최한 「1990년도 정보문화 학술세미나」의 강연내용임.

〈편집자註〉

수 있게 할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정보통신회선이 운용되고 있고 독립된 텔렉스망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정보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망이 2000년대 초에는 완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전 계획이 실현된다면 유권자들이 전자투표를 통하여 가만이 앉아서 국가의 정책결정이나 지방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오지 농촌의 유권자들도 투표장에 나가지 않고 직접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 · 문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전기통신공사는 개인용 컴퓨터를 전화선에 연결, 학생 스스로 자습할 수 있는 초·중·고교용 온라인 가정학습 시스템과 학습교재를 개발키로 하고, '91년 3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거쳐 '92년부터 교육개발원 프로그램 외에도 웅진, 아이템플 등 학습지 제작업체들을 정보제공자로 참여시켜 상용화할 계획을 세우고, 상용화 이후 단계적으로 서비스 과목을 초·중·고교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 다니지 않고 교육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도시 농촌간의 교육 격차가 해소될 것이다.

한편 고도의 뉴미디어의 발달은 언론·방송도 새로운 변신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전자신문·

위성신문·유선TV·위성통신방송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통신매체로 인하여 「정보가 생산자로부터 받는 사람에게 전국적이고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매스컴시대는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지역정보가 많아지는」 이른바 미디컴(Midicom) 시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상 주로 정보화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했는데,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우려되는 부작용 또는 부정적 측면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① 정보화로 인한 감시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조지 오웰」이 그의 작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재자 또는 소수의 기업이 정보시스템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함으로써 전체주의적 권력남용이 심화되는 반면, 모든 시민의 정보접근의 자유가 제한될 위험성이 있다.

② 경제적·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법적조치 없이는 정보기술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어, 이른바 정보부자(information rich)와 정보빈자(information poor)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③ 컴퓨터의 발달에 의한 기록보관기술의 집중화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④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가족적인 사회구조의 변화에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따르지 못하고 지체현상을 이루어 심리적 부적응을 낳게 됨으로써 「토플러」의 이른바 미래의 충격(future shock)을 가져올 가능성이 짙다.

**신고하는 시민정신 사라지는 범죄폭력**

**피땀흘려 이룬경제 과소비로 무너진다**

**엄마아빠 바로살면 아들딸도 바로른다**